

## 주께서 보내시면, 가겠는가? WHEN GOD WANTS TO SEND YOU, WILL YOU GO?

By Robert J. Tamasy

몇 주 전, 내 친구 세르지오 포르테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지대'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 이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지대 밖에서의 모험을 제안받았을 땐 어떠한가? 저항하는가? 기를 쓰며 거절하는가? 아니면 "아뇨, 못합니다"라고 간단히 거절하겠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익숙지 않은 길로 당신을 인도하시고는 시도해본 적 없는 일, 심지어는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한 절차를 밟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성경 기록들을 생각하게 된다. 노아는 전 지구적 홍수의 도래와 함께 방주를 짓도록 부름 받았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을 위해 친숙한 하란 땅의 경계를 벗어날 것을 명받았다. 모세는 400 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받을 선지자를 찾고 계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생계를 버리고 주를 따랐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책에 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안전지대로부터 끄집어내어 다른 곳으로 부르실 날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내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때가 여러 번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 중 두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지역신문 편집자로 10 년의 세월을 보낸 뒤, 하나님께서는 내게 CBMC 출판 책임자라는 문을 열어 주셨다. 잡지 기사나 책을 써본 적은 없었지만, 이는 모두 내 직무 범위에 포함된 흥미롭고도 벅찬 일이었다. 그런데 주요 직무를 전환하기도

Some weeks ago, my friend Sergio Fortes wrote about "the comfort zone," where we feel, obviously, comfortable. It's familiar, predictable, and usually does not require more effort than we are willing to give. So how do you respond when asked to venture outside your comfort zone? Do you resist? Dig in your heels and refuse? Or simply respond, "No, I can't"? What about when you sense God directing you on an unfamiliar course, asking you to do something you have never tried before, maybe even something you feel totally unqualified to do?

I think of numerous biblical accounts when people were asked to take such steps: Noah, asked to build an ark with a global flood approaching; Abraham, told to leave his friendly confines in Haran for a land he had never heard of; Moses, selected to lead the Israelites out of Egypt after more than 400 years of being enslaved; Isaiah, responding, "Here I am! Send me!" when God was looking for a prophet to take His message; and each of Jesus' disciples, who left their livelihoods to follow Him.

We might never have our life stories featured in a book, but if we are true followers of Jesus Christ, there will be times when God calls us out of our comfort zones to serve Him in another place, in another way. In my own life, I can recall numerous times when that happened. Let me cite just two:

After 10 years as a community newspaper editor, God opened a door for me to become director of publications for CBMC. I had never written a magazine article, or a book, but both were in my job description – exciting and daunting. But even before making that major career shift, the Lord wanted me to do something

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매우 두려운 일을 시키기 원하셨다. 바로 400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말하는 일이었다.

내 스스로 '외향적인 내향성'이라 칭하는 나는 개별적, 소그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편하지만, 한 번에 수백명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계신 내 담임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바로 그 일이었다. 목사님은 주일 아침 회중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을 제안하셨다.

맨 처음 반응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였다. 하지만 기도해보기로 했고, 결국 이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주일 아침, 이야기할 차례가 다가올 때까지 예상대로 매우 긴장했지만, 단상에 서서 나를 응시하는 많은 얼굴들을 바라보자, 마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빌 4:7)*

나의 짧은 연설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때 그 순종의 한 걸음은 다양한 CBMC 행사 환경에서 연설할 많은 기회의 디딤돌이 되었다. 이어서 내가 언급하고자 했던 두 번째 사건이다.

1999 년도에 국제 CBMC 직원으로 일했을 당시 회장이었던 팀 필팟은 CBMC 가 브라질 사역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했고, 그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뭐라고요?" 나는 브라질에 대해 무지했고 포르투갈어도 모를뿐더러 '사역 개발'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다.

그 여행은 매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까지 상파울루, 쿠리티바, 비토리아와 20 년 이상의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역의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오늘날까지 '월요만나'를 5~6 개의 언어로 번역해 각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바로 열정적인 브라질인 그룹이다. 위 사례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순종의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that for me was quite frightening – to speak to a crowd of more than 400 people.

Being what I call an "extroverted introvert," I was comfortable speaking to people individually or in small groups, but speaking to hundreds at one time? Yet this is exactly what God was directing me to do, through my pastor in Houston, Texas, U.S.A. He had suggested I briefly speak to our congregation one Sunday morning to tell what I would be doing, and to solicit their prayers.

My initial reaction was, "I can't do that!" But I agreed to pray about it, and eventually felt impressed this was what I should do. That Sunday morning I was, as expected, very nervous waiting for my turn to speak, but when I stood behind the podium and saw many faces staring back at me, I felt what Philippians 4:7 calls *"th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My short talk went surprisingly well. That step of obedience proved to be a stepping stone for many opportunities to speak at CBMC events in a variety of settings. Which leads to the second example I want to mention:

In 1999, I was on staff with CBMC International, and Tim Philpot, then its President, said we needed to reconnect with the ministry in Brazil – and I was the one to do it. "What?" I knew nothing about Brazil, could not speak Portuguese, and was no expert in "ministry development." But drawing from past experience, I trusted God knew what He was doing in sending me there.

The trip turned out to be extremely fruitful, and to this day I maintain friendships that were formed more than 20 years ago in Sao Paulo, Curitiba and Vitoria. Out of that ministry journey came an unexpected result: An enthusiastic group of Brazilians who to this day translate "Monday Manna" into 5-6 other languages, then send each edition literally around the world. This and other instances taught an important lesson: When we step out in obedient faith, God will always do more than we could ever imagine.

##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 1. 당신만의 '안전지대'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How would you describe your own "comfort zone"?

###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Have you ever had a time when you felt God directing you to do something that was far outside your comfort zone, perhaps even something you felt unqualified to do? How did you respond?

### 3. 그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다고 생각합니까? 주께서 당신을 불러 무언가를 하게 하셨고, "전 못하겠어요!"라는 생각이 들 때,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Why do you think that taking a step of faith at such times is so difficult? What is the role of prayer when the Lord calls you to do something and you think, "I can't do that!"?

### 4. 당신 또는 누군가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결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에베소서 3:20) 부여하신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당신과 다른 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나눠봅시다.

Can you think of a time when you – or someone you know – did take that step of obedience and the outcome proved to be "exceeding abundantly beyond anything you can ask or imagine" (Ephesians 3:20)? Describe the impact it had on you – and others.

###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about this subject,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시편 37:4-5; 잠언 3:5-6, 16:1,3, 19:21; 이사야 6:1-8; 마태복음 28:19-20

- (시 37:4-5)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잠 3:5-6)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잠 16: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 (잠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 (잠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 (사 6:1-8)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마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북미주 KCBMC [www.kcbmc.net](http://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http://www.cbmc.or.kr)